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교사교육 관련 연구 분석

김현진
청주교육대학교

ARTICLE INFO

Received: 20 September 2020

Revised: 16 October 2020

Accepted: 15 November 2020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KEYWORDS

English teacher education/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SLTE)/

Teacher cognition/

영어교사교육/

제2언어교사교육/교사인지

ABSTRACT

Kim, Hyun Jin. (2020). An analysis of research papers on English teacher education published in *Modern English Edu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21(4), 84-94.

This paper analyzed 28 articles on English teacher education out of 413 articles published in *Modern English Educat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it was first index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to investigat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on English teacher education in the journal. The article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according to subject (teacher status and school level),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them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less studied than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re-service and in-service secondary school teachers;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ologies were employed in similar proportions across the studies; among eight research themes including teacher competence, teacher identity, and teacher training program, teacher cognition was the most studied.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journal reflects changes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SLTE) and the key issues in research on SLTE.

I. 서론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사교육은 1997년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영어가 채택되는 것에 대비하여 1990년대 초중반부터 교육대학교 영어교육전공이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중등영어 교사교육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46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의 신설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1970년대이후 여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영어교사양성이 이루어졌다(C. K. Min & S. G. Park, 2013). 우리나라 영어교사교육은 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며 시대마다 국가의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

았으며 학문 내부적으로는 언어학, 응용언어학, 영어교육학, 교육학의 영향을 받아왔다. 영어과 교육과정 및 관련 정책의 변화는 곧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의사소통능력이라는 영어교육 목표가 더 이상 영어과 교육과정 문서의 명문화에 그쳐서는 안되며 학교 현장 영어교육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2000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수업(TEE) 정책의 도입 등 정책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어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은 계속 높아져 왔다. 영어교사교육 분야에서는 초중등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등 새로운 요구

를 수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모색되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영어교사교육에 대한 학술 연구가 전체 영어교육 분야의 연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영어교육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교사양성 관련 논문이 전체 게재 논문 중 2%미만이었던 연구 보고(N. Kim, 2009)가 있었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어교육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는 교사양성 관련 논문이 7.5%를 차지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연구(C. K. Min & S. G. Park, 2013)는 영어교사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증가를 수치로 보여준다. 1970~80년대에 관련 연구가 드물게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K. Ahn, 2015),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영어교사교육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교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연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사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학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영어교사교육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연구 주제는 교사교육의 관심사를 반영하므로 현재 영어교사교육 현장에서 교사발달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영어교사교육 연구의 특징을 분석한 최근 논문 중 국내 한 학술지에 50년간 게재된 논문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K. Ahn(2015)의 연구는, 우리나라 영어교사교육 역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행된 논문 편수, 연구방법 및 주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 결과를 보면 1970년대까지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고 1990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 이후에 게재된 논문이 전체 영어교사교육 관련 논문 97편 중에서 70편(74.68%)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또한 2000년을 기준으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의 변화도 뚜렷한데, 특히 연구주제의 변화는 교사교육의 관심 영역을 보여주므로 의미가 있다. K. Ahn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연구 주제로 영어교사의 자질 및 역할 그리고 전문성 신장이 우세했다면, 이후에는 교사 인지(teacher cognition)와 교사 발화 및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영어교사교육 연구주제의 변화가 최근 제2언어 교사교육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영어교육 및 영어교사교육의 실제와는 별개로 학문 분야로서 영어교사교육 또는 제2언어교사교육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분야의 시작은 영어교육이 전세계적으로 확장되며 청화식 교수법과 상황언어 교수법이 새로운 외국어 교수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던 1960년대이며(Richards, 2008), 제2언어교사교육(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SLTE)이라는 용어도 1990년에 제2언어 예비교사의 양성

과 교육을 지칭하며 처음 사용되었다(Richards, 1990). 제2언어교사교육은 1960년대 행동주의 학습 이론부터 최근의 사회문화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인접 학문 이론에 영향을 받으며 학문 분야로 발달하고 있으며(Freeman, 2016), 제2언어교사교육 개념도 초기의 교사훈련(teacher training)에서부터 교사발달(teacher development), 최근의 교사 학습(teacher learning)에 이르기까지 계속 재정립되고 있다(Richards, 2008). 제2언어교사에 대한 이해도 지식을 전달받아 수용하는 소비자에서 벗어나 실제 경험을 성찰하고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는 성찰적 전문가(Richards, 2008) 또는 복잡한 사회·문화·역사적 상황 맥락에서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학적 결정을 하는 적절한 지식의 창조자 및 사용자(Johnson, 2006)로 변화되었다. 제2언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Farrell, 2018), 제2언어교사교육 분야의 주된 이슈들을 몇 갈래로 분류해볼 수 있다. Wright(2010)은 *Language Teaching*에 25년간 게재된 논문의 주제를 세 개의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는 제2언어교사교육을 규범적 지식 전달에서 자율적 판단력과 실천 지식을 갖추게 하는 교사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둘째는 제2언어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 교사 학습(teacher learning), 교육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등의 교사의 지식 기반(teacher knowledge base), 셋째는 이론과 실제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현장학교기반(school-based) 교사학습이 그것이다. 제2언어교사교육에서 이론과 실제 간의 거리만큼 중요한 문제가 교사의 신념 및 계획과 실제 교수행위 간의 차이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교사인지(teacher cognition) 역시 최근 이 분야의 관심 영역이다(Johnson, 2009; Li, 2019; Richards, 2008). 교사의 지식기반이 어떻게 형성되고 교사의 신념, 사고 및 의사결정 과정이 교실 수업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2언어교사교육의 짧은 역사에도 최근까지 영어교사교육은 전세계적으로 영어교육분야의 많은 이론 및 실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영어교사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오고 있다. 그간 이루어진 영어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분석해보는 것은 현재의 영어교육 및 영어교사교육을 보다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Farrell, 2018; Wright, 2010).

현대영어교육 학술지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내 영어교육 전문 학술지 중 하나로 영어교육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고 있다. 영어교사교육도 그 중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어교사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0년간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영어교사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사교육 관련 논문에서 연구대상은 교사의 신분 및 학교 급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해당 연구에는 어떤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연구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논문

현대영어교육학회 홈페이지 논문 검색창에서 현대영어교육 11권 3호부터 21권 3호까지 게재된 논문 총 413편의 제목, 초록, 주제어를 살펴보고 영어교사교육에 대한 논문을 1차적으로 선별한 뒤, 선별한 논문을 읽고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분석 대상으로 28편의 논문(참고문헌 목록에 * 표시함)을 확정했다. 이는 해당 기간에 게재된 전체 논문 중 6.78%를 차지하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1964~2015년 전체 논문의 5.6%, K. Ahn, 2015; 2010~2012년 전체 논문의 7.5%, C. K. Min & S. G. Park, 2013)와 유사한 비율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영어교사는 초등학교의 현직교사만이 아니라 예비교사, 사설학원 강사, 원어민 교사,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의 교사를 모두 포함한다.

2. 연구 분석 방법

28편의 논문을 읽으며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분류했다. 연구대상은 교사의 신분에 따라 예비교사, 현직교사로 구분하고, 교사가 속한 학교 급에 따라 초등, 중등, 혼합, ESL로 구분했다. 사설학원 강사와 원어민 교사의 경우 별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고, 초·중등교사와 함께 연구되어 따로 범주를 구분하지 않았다. 연구방법은 양적, 질적, 혼합연구로 구분했으며, 분석 논문이 많지 않으므로 세부 방법에 따른 범주는 설정하지 않았다. 연구주제는 초록, 연구 문제, 결과 등을 자세히 읽으며 주제를 목록화하고, 주제 목록을 여러 번 읽으며 더 큰 범주로 통합했다. 주제를 통합할 때 연구주제를 분석한 선행연구(K. Ahn, 2015; Freeman, Webre, & Epperson, 2019; Wright, 2010)의 분류를 참조했다. 한 논문의 주제가 둘 이상의 범주와 관련된 경우 비중이 더 높은 범주의 주제로 분류했다. 분류한 자료는 표 1과 같이 코딩했다.

TABLE 1
Data Coding Scheme

Variable	Category
Teacher Status	1: Pre-Service, 2: In-Service
School Level	1: Elementary, 2: Secondary, 3: ESL, 4: Elementary + Secondary (Mixed)
Methodology	1: Quantitative, 2: Qualitative, 3: Mixed
Theme	1: Teacher Competence (Classroom Interaction Competence), 2: Teacher Cognition/Awareness (Teacher Competence, Teacher Motivation, Pedagogy, Reflection on Teaching Practice, Class Observation, Education Policy), 3: Teacher Identity, 4: Teacher Training Program, 5: Other

III.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에 따른 분석 결과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논문들을 연구 대상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논문 28편 중 S. Kang(2017)의 연구는 MICASE(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의 자료 분석으로서 교사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 분류에서는 제외했다. 27편 중 예비교사 대상 연구는 11편, 현직교사 대상 연구는 16편이었다. 예비 및 현직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초등교사 대상 연구는 9편, 중등교사 대상 연구는 15편이었으며, 초·중등교사를 모두 포함한 논문은 2편이었다. ESL 교사 대상 논문도 1편이 게재되었다. 예비교사 대상 연구보다 현직교사 대상 연구가 더 많고, 초등교사 대상 연구나 초·중등 교사를 모두 포함한 연구보다는 중등교사 대상 연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TABLE 2
Research Classification by Subject (N=27)

Subject	Category	n	%
Teacher Status	Pre-Service	11	40.7
	In-Service	16	59.3
School Level	Elementary	9	33.3
	Secondary	15	55.6
	ESL	1	3.7
	Mixed (Elementary + Secondary)	2	7.4

표 3은 교사의 신분과 학교 급 두 기준으로 교차하여 분류한 것이다. 표 2에서 전체 예비교사 대상 연구의 비율이 현직교사 대상 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 것은 초등·예비교사에 대한 논문 편수(2편)가 적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예비 영어교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기 보다는, 국내 영어교육 전문가 중 초등·예비교사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교육대학 재직 연구자의 비율이 낮고, 초등·영어교육 전문 학술지에 해당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예비교사 대상 연구는 8편, 초등·현직교사 및 중·현직교사 대상 연구는 각각 7편이고, 그 외 연구는 소수에 그쳤다.

TABLE 3
Research Classification
by Teacher Status and School Level (N = 27)

Teacher Status	School Level	n	%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2	7.4
	Secondary School	8	29.6
	ESL	1	3.7
In-Service	Elementary School	7	25.9
	Secondary School	7	25.9
	Mixed (Elementary + Secondary)	2	7.4

표 2와 3을 종합해 볼 때, 초등예비교사 대상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중등 혼합 연구 중 S. J. Choi(2013)는 초등-중등 간 구분 없이 비판적 교육학의 적용 사례를 연구했고 S. E. Shin과 H. D. Kim(2012)은 교직 경험이 많은 교사와 신규 교사 간의 인식 차이에 중점을 두었음을 고려할 때, 학교 급 별 비교 분석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개별 연구들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2.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논문 28편을 연구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구방법 면에서 볼 때,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문헌 연구 1편과 코퍼스 연구 1편을 제외하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양적 연구로는 설문 후 빈도분석이나 통계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전체 10편 중 7편으로 가장 많았다. K. A. Jin과 S. K. Kwon(2020)은 전국 100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

는 186명의 초등영어교사에게 설문을 실시하고 빈도분석을 했으며, S. C. Kang과 J. H. Kim(2011)은 24개 도시 67개의 고등학교 영어교사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학급 크기와 학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변수로 하여 통계 분석을 했다. Y. J. Lee(2020)는 중등예비교사 32명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인식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학점, 영어 성적, 학교 생활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통계분석했으며, Y. J. Lee와 M. Lee(2011)는 200명의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TEE 정책의 성공 요인과 교실영어능력 평가 요소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통계분석했다. U. Maeng(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영어교사 106명의 어휘지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고, 교사의 교직 경험, 해외 연수 경험, 담임 교사 경험, 영어교사 경험 등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통계 분석을 했다. U. Maeng(2014)의 연구에서도 초등영어교사의 수업 방식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초등영어교사 114명의 동기 유발 전략에 대하여 Keller의 ARCS 모형을 기반으로 작성한 설문을 실시하고, 교사의 교직경험과 영어 능숙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S. E. Shin과 H. D. Kim(2012)은 24명의 초중등교사와 47명의 학원영어 강사를 대상으로 과업중심 수업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고 교육기관 및 영어수업 경험을 변수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교사 대상의 설문 이외에 다른 양적 연구로는 J. Lim(2011), S. H. Kwon(2016), S. Yang과 J. Yi(2013)의 연구가 있다. J. Lim(2011)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출제된 중등교원 임용시험 120문항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했으며, S. H. Kwon(2016)은 62명의 중등예비

TABLE 4
Research Articles by Teacher Status and School Level

Status	School Level	Source
Pre- Service	Elementary	H. J. Kim (2010), H. J. Kim (2019)
	Secondary	S. Ahn (2018), Y. G. Cho (2019), Y. J. Lee (2020), M. K. Kim (2018), Y. Kim & J. Yi (2012), H. O. Kim (2016), J. Lim (2011), S. Yang & J. Yi (2013)
	ESL	J. Kim (2019)
In- Service	Elementary	Y. Choi & T. Kim (2016), K. Jin & S. Kwon (2020), M. Kim & K. Ahn (2017), M. Kim & E. Lee (2011), U. Maeng (2012), U. Maeng (2014), W. Park (2016)
	Secondary	Y. Bang (2013), Y. J. Jung (2020), S. C. Kang & J. H. Kim (2011), S. H. Kwon (2016), H. J. Lee (2016), Y. Lee & M. Lee (2011), I. Han (2017)
	Mixed	S. J. Choi (2013), S. E. Shin & H. D. Kim (2012)

TABLE 5
Research Classification by Research Methodology (N = 28)

Methodology	Study	n	%
Quantitative	K. A. Jin & S. K. Kwon (2020), S. C. Kang & J. H. Kim (2011), S. H. Kwon (2016), Y. J. Lee (2020), Y. J. Lee & M. Lee (2011), J. Lim (2011), U. Maeng (2012), U. Maeng (2014), S. E. Shin & H. D. Kim (2012), S. Yang & J. Yi (2013)	10	35.7
Qualitative	S. Ahn (2018), S. J. Choi (2013), Y. J. Jung (2020), J. Kim (2019), M. Kim & K. Ahn (2017), H. J. Lee (2016), W. Park (2016)	7	25.0
Mixed	Y. Bang (2013), Y. J. Choi & T. E. Kim (2016), Y. G. Cho (2019), I. Han (2017), H. J. Kim (2010), H. J. Kim (2019), M. K. Kim (2018), M. J. Kim & E. J. Lee (2011), Y. Kim & J. Yi (2012)	9	32.1
Other	S. Kang (2017), H. O. Kim (2016)	2	7.1

교사를 대상으로 34항목의 문법성 판단 과제와 15문항의 메타언어 사용 과제를 사용하여 이들의 메타언어 지식을 측정하고 영어 능숙도에 대한 자기평가 설문을 실시한 뒤 통계분석을 했다. 마지막으로 S. Yang과 J. Yi(2013)는 20명의 중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COLT 관찰 틀을 사용하여 교육실습 중 수업관찰을 하게 하고 관찰 전후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빈도분석했다.

이와 같이 양적 연구들은, 교실 수업관찰 후 설문분석(S. Yang & J. Yi, 2013), 임용시험 문항 유형에 대한 빈도분석(J. Lim, 2011), 교사의 메타언어 능력 과제에 대한 통계분석(S. H. Kwon, 2016) 3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7편의 연구는 교사들에게 다른 처치없이 바로 설문을 실시한 뒤 설문 결과를 빈도 분석하거나 통계분석을 하는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모두 7편이 게재되었는데, 대부분 교사들의 실제 수업이나 교수법 경험 후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수업관찰 및 수업성찰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S. Ahn(2018)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수행 교육학(critical performative pedagogy)을 디자인한 뒤 4명의 중등예비교사들에게 이를 경험하고 성찰하게 한 뒤 성찰내용을 분석했다. S. J. Choi(2013)의 연구에서도 비판적 교육학(critical pedagogy)을 적용하고 이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교육기관 및 학교 급이 다양한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비판적 교육학을 경험하게 한 뒤 이들의 수업을 관찰한 내용과 및 교사들의 성찰문을 분석했다. Y. J. Jung(2020)은 2명의 원어민 영어교사와 2명의 중등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팀티칭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세부 주제별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으며, H. J. Lee(2016)는 4명의 원어민 영어교사와 3명의 중등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영어교사 능력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 H. J. Lee(2016) 연구 이외에도 반구조화 인터뷰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J. Kim(2019)과 M. Kim과 K. Ahn(2017)이 있다. J. Kim(2019)은 TESOL MA 과정을 밟는 3명의 ESL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업활동 자료, 수업관찰, 반구조화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 비교 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교사 정체성을 분석했으며, M. Kim과 K. Ahn(2017)은 읍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교사의 반구조화 인터뷰 내용 및 교수 일지를 분석했다. 이들은 주제별 범주화 과정을 거쳐 삼차원적 공간을 기반으로 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지도 경험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성찰이나 인터뷰 내용분석 이외의 연구로는 W. Park(2016)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현직 초등영어교사 8명의 1600분 분량의 영어수업에 나타난 상호작용을 전사하고 분석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연구도 9편으로 전체 연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우선 첫번째 혼합연구 유형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인터뷰를 병행하거나 주관식 설문 답변을

내용분석한 유형의 연구 3편이 있다. Y. Bang(2013)은 국내 연수와 국외연수 혼합형 프로그램에 참가한 13명의 중등영어교사를 대상으로 5점 척도의 12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 조사와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한 뒤 설문 결과를 빈도분석하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다. Y. G. Cho(2019)는 80명의 중등예비 영어교사들의 교수동기와 영어 능력에 대해 22개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고 이 중 5명의 예비교사들에게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리고 5점 척도의 설문문항 결과를 통계분석하고 개방형 문항과 인터뷰 결과를 내용 분석했다. I. Han(2017)은 287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사의 자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영어 성취수준과 성별에 따라 빈도 분석했으며 주관식 답변은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혼합연구 중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여 특정 담화 유형이나 피드백 유형을 추출한 뒤 각 유형의 발생 빈도를 양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3편이 있었다. Y. J. Choi와 T. E. Kim(2016)은 TEE-Ace 자격증에 필요한 영어수업 실연능력 평가시험인 Teaching Practice Test(TPT)를 연습하는 8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교실담화 녹화를 분석하여 9개 이상의 담화 구조를 추출하여 빈도를 제시했다. M. J. Kim과 E. J. Lee(2011)는 현직초등교사가 실시한 28시간 분량의 영어수업을 관찰하고 교사의 인터뷰 및 학생 설문을 실시하여 오류 수정 피드백의 유형 및 반응을 분류하고 빈도수를 제시했다. H. J. Kim(2010)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수업을 분석했다. 32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게 한 뒤 교실담화에 나타난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 수업방식에 따른 상호작용 유형의 발생 빈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통계분석을 했다.

혼합연구 중 세번째 유형으로 예비교사들의 수업성찰을 내용분석한 연구 3편이 게재되었다. H. J. Kim(2019)은 72명의 초등예비교사들이 3단계의 수업실연 후 성찰한 내용을 성찰수준과 주제 별로 분류하고 발생 빈도를 분석했다. M. K. Kim(2018)은 18명의 중등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에 대한 성찰문을 작성하게 한 뒤 주제 분석 틀을 사용하여 성찰내용을 분석하고 추출한 4가지 주제의 빈도를 제시했다. Y. Kim과 J. Yi(2012)의 연구에서도 중등예비교사들의 성찰내용 분석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26명의 중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 경험에 대해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NVivo 10으로 코딩하고 성찰수준의 빈도를 분석하여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합연구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폐쇄형 설문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뷰 또는 개방형 답변을 추가해서 분석한 연구, 교실 발화를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발생 빈도를 기술 통계 및 추론 통계로 분석한 연구, 수업에 대한 성찰내용을 분석하여 성찰주제 및 수준으로 구분하고 빈도를 제시한 연구로 구분된다. 그 외 교실 담화 코퍼스를 분석한 연구(S. Kang, 2017)와 중등예비

교사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H. O. Kim, 2016)가 있었다.

3.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

현대영어교육 11권 3호부터 21권 3호에 게재된 논문 28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6처럼 5개 영역(교사 능력, 교사인지/인식, 교사 정체성, 교사교육 프로그램, 기타)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교사인지/인식으로 전체 논문 편수의 과반이 넘는 15편(53.6%)에 달했다.

교수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교사의 교실 상호작용 능력(Classroom Interactional Competence, Walsh, 2011)에 대한 연구 4편이 게재되었다. 우선, H. J. Kim(2010)의 연구에서는 초등예비교사의 교사 발화에 나타난 상호작용 조절(interaction modification) 방식을 연구했다. 예비교사 32명의 수업실연을 분석한 결과, 7개 유형의 상호작용 조절을 확인하였고, 상호작용 조절은 예비교사의 영어 수준, 외국어 교수 불안(foreign language teaching anxiety) 정도, 수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영어 수준이 높은 예비교사는 학생과의 상호 이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영어 수준이 낮은 예비교사는 자신의 이해에 초점을 두며, 교수 불안이 높은 예비교사는 적극적 조절 전략을 회피하고 반복 등의 유형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반복 유형은 PPP 수업, 이해 점검은 역할놀이 및 정보 차 활동에서 빈도가 높고, 명료화 요청은 역할놀이와 언어경험 접근법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교육에 수업 유형 및 예비교사의 변인을 고려한 상호작용 조절 연습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초등영어교육현장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Y. J. Choi와 T. E. Kim(2016)은 Teaching Practice Test를 준비하는 현직교사들의 수업 동영상 분석하여, 여러 유형의 사고능력을 자극하는 질문 유형과 특징 및 답화

구조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인지과정 6개 유형 중 실행(execution) 및 재인(recognition) 질문의 빈도가 높고, 이해, 분석, 평가, 창조의 사고 유형을 자극하는 질문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담화구조는 9개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중 IRR(initiation-response-repetition)과 IRs(initiation-student response)의 빈도가 높았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능력을 자극하는 질문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영어교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질문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M. J. Kim과 E. J. Lee(2011)는 초등영어 현직교사의 교정적 피드백 사용을 연구하기 위해 28시간 분량의 4학년 영어 수업을 관찰하여 학습자 발화 오류 유형,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 학생의 피드백 채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어휘, 문법, 음운, 맥락 상의 오류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 오류에 대해 한국인 교사는 명시적 교정적 피드백을 선호한 반면, 원어민 교사는 리퀘스트를 선호함을 발견했다. 또한 한국인 교사의 피드백 중 리퀘스트가 학생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채택되었으며,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 중 유도(elicitation)의 채택이 높았다. 이 연구는 교사들이 발화 오류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의 두 연구가 상호작용의 특정 유형을 연구했다면, W. Park(2016)의 연구는 교사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교사 8명의 수업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학습 목표를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게임 활동절차를 세분화해서 제시하며, 수시로 학습자의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여 이해 점검하고, 학습자들이 목화 과제에 집중하도록 학습 환경을 조직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교사의 교실 상호작용 능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모두 초

TABLE 6
Research Classification by Theme (N= 28)

Theme	Source	n	%	
Teacher Competence	Classroom Interactional Competence	Y. J. Choi & T. E. Kim (2016), H. J. Kim (2010), M. J. Kim & E. J. Lee (2011), W. Park (2016)	4	14.3
	Teacher Competence	M. Kim & K. Ahn (2017), S. H. Kwon (2016), H. J. Lee (2016)	3	
	Teacher Motivation	Y. G. Cho (2019), Y. J. Lee (2020)	2	
Teacher Cognition/Awareness	Pedagogy	Y. Jung (2020), Y. J. Lee & M. Lee (2011), U. Maeng (2012), U. Maeng (2014), S. E. Shin & H. D. Kim (2012)	5	53.6
	Reflection on Teaching Practice	H. J. Kim (2019), M. K. Kim (2018), Y. Kim & J. Yi (2012)	3	
	Class Observation	S. Yang & J. Yi (2013)	1	
	Education Policy	K. A. Jin & S. K. Kwon (2020)	1	
	Teacher Identity	J. Kim (2019)	1	
Teacher Training Program		S. Ahn (2018), Y. Bang (2013), S. J. Choi (2013), H. O. Kim (2016)	4	14.3
	Student Awareness	I. Han (2017)	1	
	Native English Teacher Policy	S. C. Kang & J. H. Kim (2011)	1	
Other	Corpus	S. Kang (2017)	1	14.3
	Recruitment Exam	J. Lim (2011)	1	

등영어수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초등영어수업에서 교사의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관심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두번째 연구주제인 교사인지/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6개의 하위 주제(교사 능력에 대한 인지, 교사 동기에 대한 인지, 교수법에 대한 인지, 교수 실체에 대한 성찰, 교실 관찰에 대한 인지,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로 분류된다. 첫번째 하위 주제인 교사 능력에 대한 인지에 대해 3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M. Kim과 K. Ahn(2017)은 읍면 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4명의 인터뷰와 교사일지 내용분석을 통해 이들의 영어교수 경험 및 영어교육에 대한 인지를 연구했다. 그 결과, 학교 환경이 이들의 경험과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말하기 기회, 교사의 수업 자율권, 개별화 지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학생들의 낮은 영어 접근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지도하는 것이 교실에서의 영어 사용 및 다른 교과와의 통합 기회를 높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어교과를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읍면 지역에서 담임교사로서 영어를 지도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 H. Kwon(2016)은 국내 현직교사의 메타언어지식 및 언어 능숙도와 관련하여 이들의 메타언어적 인지를 미국 대학 TESOL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예비교사들과 비교하여 연구했다. 문법성 판단 및 메타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된 결과, 한국인 교사들은 메타언어 사용 지식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보였으며, 원어민 교사들은 문법성 판단에서 더 우수했다. 그리고 한국인 교사의 문법성 판단은 영어 능숙도와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H. J. Lee(2016)는 영어교사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교사의 인지에 대해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를 비교하여 연구했다. 반구조화 심층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교사 정체성 및 영향 요인에 대해 이들이 인지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 교사는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의 차이가 언어적, 사회문화적, 교수법 상의 장단 및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원어민 교사의 존재가 비원어민 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 즉 영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실제 능력간의 차이 인식을 강화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원어민 화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문제에 주의를 환기한다는 의의가 있다.

교사인지에 대한 두번째 하위 주제로서 교사 동기에 대한 인지 연구가 2편 있었다. Y. G. Cho(2019)는, 교직 계열과 비교직 계열 중등예비교사들의 동기 및 영어 능력에 대한 인지를 비교했다. 동기의 여러 하위 요인들—의도, L2 자아, 촉진성(promotion) 및 방해성(prevention) 도구적 동기(instrumentality), 통합적 동기(integrativeness)—과 자신의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 설문 그리고 진로에 대한 어려움에

관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직 계열 예비교사는 동기 의도와 통합적 동기가 강하며, 비교직 계열 예비교사는 방해성 도구적 동기와 규범적(ought-to) L2 자아가 현저하게 높았다. 그리고 방해성 도구적 동기는 비교직 계열 예비교사의 영어 능력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전체 교사교육관련 연구 중 교직 계열과 비교직 계열을 비교한 유일한 연구이며, 계열에 따라 예비교사교육에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Y. J. Lee(2020)는 중등예비교사의 1년간 학업 성취 및 영어 성적 그리고 대학입학유형(수시·정시·학종)과 관련 지어 영어교사로서 자신에 대한 인식과 동기 변화를 연구했다. 그 결과 입학유형이 인식 변화 특히 전공 및 학업 만족도, 교수동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정시입학유형의 경우 두번째 학기에 학점이 하락했고, 타인(부모)에 의한 전공 선택으로 인해 영어과목 및 영어교수에 대한 흥미가 하락했다. 수시입학유형의 경우 동료 및 교수진과의 친밀도가 학업 적응력에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학종 입학유형의 경우 학업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교사의 전공적성 결정 지원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교사인지에 대한 세번째 하위 주제로서 교수법에 대한 인지 연구로 총 5편이 게재되었다. Y. J. Jung(2020)은 원어민 교사와의 팀티칭 방식에 대한 현직 중등교사의 인식을 연구했으며, 팀티칭이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협력을 통해 (특히 학습자의 음성언어지도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두 집단의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음으로 Y. J. Lee와 M. Lee(2011)는 교실영어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영어 능숙도, 수업 언어 운용, 학생발화 유도(scaffolding), 학습자 발화에 대한 피드백,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언어 등의 교실영어능력 요소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학교 급, 교수 경험, 영어 능숙도, 영어 사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모든 교사들이 교사의 영어구사력을 가장 중요한 TEE 성공 요인으로 인식했으나, 중학교 교사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영어구사력, 교사의 수업진행 능력이 골고루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다른 요인에 비해 교사의 영어구사력이 월등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현장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정책 입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영어어휘지도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로 U. Maeng(2012)은 초등영어 현직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어휘지도에 대한 인식을 교수경험, 해외연수경험, 영어지도경험의 종류와 관련 지어 연구했다. 교과서 어휘 난도에 대해서는 35%의 교사들이 낮다고 인식한 반면 23%의 교사들은 적절하다고 인식했으며, 어휘 수에 대해서는 47%의 교사들

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20%의 교사들만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차시 당 신출 어휘 수 4개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했으며, 전체 교사 중 과반 이상의 교사들이 소수의 고빈도의 사소통기능이 교과서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U. Maeng(2014)은 초등 현직교사의 동기 유발전략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인식도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동기유발전략 사용량이 충분하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사용에 대한 인식은 중요도에 대한 인식보다 낮았다. 교사의 교수경험은 동기유발전략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교사의 영어 능숙도는 효과가 큰 요인을 밝혔다.

과업중심교수법에 대한 교사인식 연구로 S. E. Shin과 H. D. Kim(2012)은 다양한 배경의 영어교사(24명의 초중등 교사 및 47명의 사설학원 강사)의 인식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과업중심교수법이 듣기와 말하기 측면에서 유의미한 학습과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공헌하는 교수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유의미한 상호작용과 능동적 수업활동을 위해 다양한 과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교사인지의 네번째 하위 주제인 수업실제에 대한 성찰연구로 3편이 게재되었으며, 모두 예비교사 대상 연구였다. H. J. Kim(2019)의 연구에서는, 수업실연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성찰을 연구했다. 71명의 예비교사들이 3단계 수업실연 후 작성한 성찰내용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성찰주제(영어지도, 학습자, 교사 자신, 수업실연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3개의 성찰수준(기술적, 비교적, 비판적)이 확인되었다. 비판적 수준의 성찰 빈도가 다른 수준에 비해 낮지만 교사의 수업 성찰에 대한 다른 연구들과 달리 20%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주목하며 모든 초등 교과목의 수업실연과 성찰을 4년간 연습하는 초등 예비교사들의 경험이 영어과목의 수업성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구자는 수업실연과 성찰이 예비교사들의 영어지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머지 2편은 모두 중등예비교사의 수업성찰에 대한 연구이다. 우선, M. K. Kim(2018)은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중학교 예비교사 18명의 성찰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들의 성찰주제로는 수업실습 및 관찰 그리고 교사 자신의 감정 및 교수능력이 우세했으며, 성찰문작성이 수업성찰 연습을 촉진하고 예비교사의 교수지식 적용을 구체화하며, 영어 능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Y. Kim과 J. Yi(2012)도 교육실습에 대한 중등예비교사의 성찰을 분석했다. 이들은 예비교사 26명의 사례 보고서 내용과 이중 4명의 초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성찰주제를 교실수업활동, 교실운영 문제점, 해결 방안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기술적 쓰기, 기술적 성찰, 대화적 성찰, 비판적 성찰의 수준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사례 보고서 작

성이 성찰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는 활동으로 중요함을 강조했다.

교실 수업관찰에 대한 교사인지 연구에는 S. Yang과 J. Yi(2013)가 해당한다. 중등예비교사 20명에게 대안 학교의 수업을 COLT 수업관찰 틀을 사용하여 관찰하게 하고 관찰 전후에 수업관찰 및 관찰 틀 사용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예비교사들은 수업관찰 전 수업실행의 여러 영역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자 했으나 교사의 내적 영역 접근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인식했다. 또한 수업관찰 중에는 관찰 틀 사용이 어려움을 인식했으며, 수업관찰 방법과 관찰 틀 사용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연구자들은 수업관찰 경험이 예비교사들의 수업구성고 수업성찰 및 교수능력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사인지에 대한 마지막 하위 주제인 교육 정책에 대한 인지 연구로는 K. A. Jin과 S. K. Kwon(202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초등영어교육 정책 및 교육 현실에 대한 현직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186명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사들은 초등영어 시수와 학습내용 수준이 적절하지만, 3, 4학년 읽기와 쓰기 지도가 현행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며, 3, 4학년 학생들 간의 영어 수준 격차가 크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연구자들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 4학년 쓰기 지도를 강화하고 언어 4기능 간의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했다.

세번째 연구 주제인 교사 정체성을 주제로 한 국내 교사 대상 연구는 없었고 국외 교사 대상 연구로 미국 TESOL 석사 과정 예비교사들의 정체성을 분석한 J. Kim(2019)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3명의 예비교사들이 교직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참여한 과제, 토론, 온라인 상호작용 등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교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이 수업활동에 참여하고, 동료 예비교사 및 교수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실습학교에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교사 정체성을 점차 타협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밝히고, 교사의 정체성 발달에 대한 고려가 교사교육에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네번째 연구주제인 교사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는 4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S. Ahn(2018)은 비판적 수행 교육학을 대안적 교사교육모델로 제안했다. 연구자는 한학기 동안 예비교사 전문성 개발 수업에서 영어교육의 사회 문화적 맥락 및 관련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 활동 즉 인터뷰, 내러티브 쓰기, 스토리텔링, 스토리 수행, 수행 분석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판적 수행 교육학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조건과 방안을 제안했다. S.

J. Choi(2013)도 비판적 교육학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다. 연구자는 다양한 배경의 영어교사 11명이 비판적 교육학을 통해 기존의 원어민 우월적 이데올로기가 잠재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민주적 영어교육을 구상하며, 적법하고 능력 있는 영어교사로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습자들이 영어 사용자로서 비판적 문제 의식을 갖추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경험하였음을 밝혔다. 비판적 교육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영어교육에 잠재된 불평등적 요소를 간과하지 않는 균형 있는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Y. Bang(2013)은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6개월 기간의 국내 출퇴근형 및 국외 합숙형 혼합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중등 현직교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 방향을 제안했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교실영어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국내 출퇴근형 연수 만족도는 국외 합숙형 연수 만족도에 비해 낮았다. 연구자는 연수 기간 동안 강의실 안팎에서 모두 영어 사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외연수 세션에서 ESL 수업 경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내 및 국외 세션 간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분석 연구도 1편 있었다. H. O. Kim(2016)은 전국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육과정을 5개 영역(영어 능력, 영어학 및 응용언어학 지식, 영문학 지식, 교수학 지식 및 교육과정 설계, 교사 연구 및 실습)에서 비교했다. 총 78개 대학의 2,192개 강좌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은 매우 소수(10개 대학)임을 밝혔다. 또한 5개 영역 중 교수학 지식 및 교육과정 설계 영역과 영어 능력 영역의 비중이 큰 반면, 교사 연구 및 실습 영역의 비중은 현저히 낮았다. 연구자는 현행 교사교육이 현장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현장에 필요한 교사교육과 교사의 성찰 능력을 높이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 외 다양한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원어민 보조교사 정책에 대한 연구로는 S. C. Kang과 J. H. Kim(2011)이 있다. 이들은 원어민 보조교사 정책의 실제 운영과 효과에 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견해를 설문조사한 결과,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수업 시간의 부족, 원어민 교사의 자질 부족 및 학생성적 평가의 낮은 가중치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에 현직교사들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 수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고 원어민 교사 선발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I. Han(2017)은 고등학생들이 인지하는 영어교사의 자질을 연구했으며, S. Kang(2017)은 MICASE(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 코퍼스에 나타난 교실담화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J. Lim(2011)은 2009년부터 2011년 3년

간의 중등교원 임용시험 문항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IV. 결론 및 제언

지난 10년간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교사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전체 게재된 논문 중 영어교사교육 주제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행연구들(K. Ahn, 2015; C. K. Min & S. G. Park, 201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 연구와 K. Ahn(2015)의 연구 간에(후자의 경우 2000년 이후 게재된 논문만 고려했을 때) 게재논문의 패턴은 유사하지만 게재 비율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두 연구에서 모두 예비교사 및 초등교사 대상 연구가 현직교사 및 중등교사 대상 연구에 비해 각각 게재 비율이 더 낮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 대비 현직교사 대상 논문 비율 그리고 초등교사 대비 중등교사 대상 논문 비율이 각각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K. Ahn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대비 현직교사 대상 연구 비율 차이는 약 10배, 초등교사 대비 중등교사 대상 연구 비율 차이는 3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두 연구의 분석 대상 논문이 게재된 기간에 차이가 있고 본 연구의 전체 분석 논문의 수가 적다는 것을 고려하면 연구 대상자 간의 비율보다 패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초등교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예비교사에 대한 연구는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의 분포율은 본 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질적연구에 비해 다소 높고 K. Ahn(2015)의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가 좀더 높았지만 전체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연구 모두 전반적으로 최근 양적 연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질적 연구와 혼합연구의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여준다. 양적 연구에서 설문조사 방법의 사용 비율이 높고,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방법이 그 다음으로 많았던 점도 두 연구에서 보여주는 유사한 패턴이다. 특히 혼합연구의 증가는 양적연구나 질적연구를 보완하고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와 분류 기준 및 방법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두 연구 모두 교사인지 및 인식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전체 연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소수이지만 영어교사 교육 분야의 최근 이슈 중 하나인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교사 정체성으로 분류한 연구는 1편이지만 Y. J. Lee(2020)나 M. Kim과 K. Ahn(2017)의 논문은 각각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초창기 영어교사교육이 교사보다는 교수법 자체에 집중되었던 반

면, 1990년대 이후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관찰 불가능한 교사의 정신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Ceung, Said, & K. Park, 2015; Freeman, 2016; Freeman et al., 2019; Li, 2019). 교사의 인지나 교사의 정체성은 자기 보고 형식의 설문이나 형식적인 인터뷰 만으로 연구를 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 교사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습득한 지식의 현장 적용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고 사용하고 성장하는 실천적 전문가로 성장하는 학습자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에도 교사인지나 정체성을 포함하여 교사전문성, 교수동기, 성장에 대한 연구에서도 교사-학습자(teacher-learner)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영어교사교육 관련 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발달 및 교사학습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종적인 연구 수행을 통한 교사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과업중심교수법이 사용되듯이 실제 교사능력을 기르는 방법도 과업중심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사학습 과정에 대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비교사가 교육과정 이전에 이미 갖고 있는 이전 경험이나 지식은 지식중심 교육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Wright, 2010), 예비교사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교사의 인지 및 신념과 교수 실제 간의 차이는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이다. 교수행위가 본래 역동적인 ‘즉흥적 실행 요소’를 갖기 때문에(Li, 2013) 교사의 계획과 실제 간에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교사인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분석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비워민 교사로서 영어교사의 정체성 연구는 정체성 형성과 타협 과정을 환경 요인과 관련 지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비교사 및 신규교사들이 느끼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사교육기관과 현장교육 간의 차이로 인한 적응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중심의 교사교육과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예비교사 신분에서 신규교사로 처음 정착하는 과정을 이어주는 지원 체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Farrell, 2018). 최근 비판적 교육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동안 주요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던 영어교육과 관련된 비워민-워어민, 다문화, 신자유주의 등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져가고 있다. 영어학습이나 영어교수 모두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습자나 교사의 태도와 신념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문제도 영어교사교육분야에서 좀 더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교사교육 4세대(Freeman, 2016;

Freeman et al., 2019)에 이른 지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넘어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 성장하는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영어교사교육 관련 연구의 분석은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관련 연구 분석에서 국내외 여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우리나라 영어교사교육 및 영어교사교육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Kyungja. (2015). An analysis of articles on teacher education in *English Teaching*. *English Teaching*, 70(5), 161-192.
- *Ahn, Soojin. (2018). Critical performative pedagogy for Korean English teachers. *Modern English Education*, 19(2), 42-55.
- *Bang, Youngjoo. (2013). EFL secondary teachers' perceptions toward blended in-service teacher trai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4(3), 23-49.
- Cheung, Y. L., Said, S. B., & Park, Kwanghyun. (2015). Expanding the horizon of research in language teacher identity: An introduction. In Y. L. Cheung, S. B. Said, & Kwanghyun Park (Eds.), *Advances and current trends in language teacher identity research* (pp. 1-11). Abingdon, UK: Routledge.
- *Cho, Young-Gyo. (2019). Pre-service EFL teachers' motivation and L2 competency: Comparing teaching and non-teaching track learners. *Modern English Education*, 20(4), 1-17.
- *Choi, Soo Joung. (2013). The possibility of critical pedagogy in TESOL teacher education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4(2), 239-262.
- *Choi, Yu-Jung, & Kim, Tae-Eun. (2016). An analysis of question types and discourse structure elementary English teachers use on the TEE-A Teaching Practice Test. *Modern English Education*, 17(3), 219-244.
- Farrell, T. S. (2018).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and future directions. In J. I. Lontas (Ed.), *The TESOL encyclopedia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7). Hoboken, NJ: Wiley/Blackwells.
- Freeman, D. (2016). *Educating second language teach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man, D., Webre, A., & Epperson, M. (2019). What counts as knowledge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S. Walsh & S. Man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13-24). New York: Routledge.
- *Han, Insuk. (2017). Attributes of quality English teachers and teaching perceived by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8(4), 135-163.

- *Jin, Kyung-Ae, & Kwon, Suh Kyong. (2020). Issues and reality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education: From teachers' perspectives. *Modern English Education*, 21(1), 22-31.
- Johnson, K. (2006). The sociocultural turn and its challenges for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TESOL Quarterly*, 40(1), 235-257.
- Johnson, K. (2009).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A socio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Routledge.
- *Jung, YeonJoo. (2020). Perceptions of team-teaching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in Korean secondary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21(2), 49-61.
- *Kang, Sang-Cheol, & Kim, Ju-Hu. (2011). The effects of native English teacher policy and the proper improvement principle of the native English teacher in high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12(2), 49-73.
- *Kang, Sanghee. (2017). Phraseological items in teacher talk and their pedagogical relevance: A corpus-based study. *Modern English Education*, 18(4), 109-134.
- *Kim, Hyeon Okh. (2016). Current practices and challenges of English teacher education: An analysis of curriculums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Modern English Education*, 17(1), 205-226.
- *Kim, Hyun Jin. (2010). Pre-service English teachers' use of interaction modification in their teacher talk. *Modern English Education*, 11(3), 55-78.
- *Kim, Hyun Jin. (2019). An analysi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flection on their English teaching demonstr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20(1), 1-13.
- *Kim, Jungyin. (2019). English pre-service teachers' identity and the negotiation of the self. *Modern English Education*, 20(2), 76-89.
- *Kim, Mi Kyong. (2018).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practicum: Focus of reflection and perceptions. *Modern English Education*, 19(2), 30-41.
- *Kim, Minjeong, & Ahn, Kyungja. (2017). A case study of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homeroom teachers teaching English at a small rural elementary school. *Modern English Education*, 18(3), 113-140.
- *Kim, Min-Jung, & Lee, Eun-Joo. (2011). A study on the types and effects of the teachers' corrective feedback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peech errors. *Modern English Education*, 12(3), 206-229.
- Kim, Namssoon. (2009). The effects of development strategies used by teacher trainers at an in-service teacher training progra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99-118.
- *Kim, Youngsook, & Yi, Jyi-yeon. (2012). Exploratory study on the reflective teacher education through the pre-service EFL teachers' case writ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3(4), 209-238.
- *Kwon, Sun-Hee. (2016). A study on NNS teachers' language awareness: Focus on metalinguistic knowledge and language proficiency. *Modern English Education*, 17(4), 51-70.
- *Lee, HyeJin. (2016). An investigation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ESTs and NNESTs: As seen from TESOL students' perspectives. *Modern English Education*, 17(3), 1-24.
- *Lee, Yoo-Jean. (2020).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ptions based on their admission types: A case study of a national university in 2019. *Modern English Education*, 21(2), 24-37.
- *Lee, Young-Ju, & Lee, Myungae. (2011). A study on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 practices. *Modern English Education*, 12(3), 322-341.
- Li, L. (2013). The complexity of language teachers' beliefs and practice: One EFL teacher's theories. *Language Learning Journal*, 41(2), 175-191.
- Li, L. (2019). Teacher cognition and teacher expertise. In S. Walsh & S. Mann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nglish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335-349). New York: Routledge.
- *Lim, Jeongwan. (2011). An analysis of the national level qualifying tests for English teacher candidates of secondary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12(1), 202-220.
- *Maeng, Unkyoung. (2012). What do primary teachers think about English vocabulary taught in primary schools? *Modern English Education*, 13(1), 113-132.
- *Maeng, Unkyoung. (2014). The use of motivational strategy of Korean primary English teachers. *Modern English Education*, 15(4), 145-169.
- Min, Chan Kyoo, & Park, Sung Geun. (2013). English teacher education in Korea: Retrospect and prospect. *English Teaching*, 68(2), 153-177.
- *Park, Wooyoung. (2016). A sequential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s' interactional practices. *Modern English Education*, 17(1), 1-26.
- Richards, J. C. (1990). The dilemma of teacher education in second language teaching. In J. C. Richards & D. Nunan (Eds.),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pp. 3-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2008).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today. *RELC Journal*, 39(3), 158-177.
- *Shin, SungEun, & Kim, HaeDong. (2012). English teachers' views on and use of tasks. *Modern English Education*, 13(1), 211-233.
- Walsh, S. (2011). *Exploring classroom discourse: Language in action*. Abingdon, UK: Routledge.
- Wright, T. (2010).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Review of recent research on practice. *Language Teaching*, 43(3), 259-296.
- *Yang, Sunmi, & Yi, Jyi-yeon. (2013).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n classroom observation and observation training using classroom observation schemes. *Modern English Education*, 14(4), 287-310.